

금남로에서

정재현



오즘 우리 사회는 어느 분야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 찾아 볼 수가 없다. 타협은...

하지만, 오늘의 혼란이 꼭 집권세력에만 있을까. 물론 국정을 맡고 있는 이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현재소장 인준 왜 이 모양인가

비판을 일삼화한 야당과 보수세력, 일부 언론도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제 5부 기관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중요와 오기의 정쟁

누가 국민의 어깨를 이렇게까지 처지게 하였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집권 주도세력인 386세대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효숙 현재소장 후보의 임명에는 시작부터 실수가 있었다. 그것이 헌법적 실수든 법률적 실수든 미숙한 절차를 밟은 청와대의 잘못이 분명하다.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을 사퇴시켜야

왜 꼼작 못할 형편이니 달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과해지의 차원에서 전효숙 후보가 가진 사퇴하라는 것이다.

동의안 처리가 해법

'전효숙 문제'의 해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위해서라도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 후보가 자진사퇴하거나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면 비합리적인 투쟁과 고집에 의해 원칙과 법질서가 무너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지나친 정쟁은 민심의 역풍을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홍근



'선'은 '점'이 모여 이루어지고, '면'은 '선'이 모여 이루어진다. 도시의 경관을 만드는 '공간과 형태'는 '선과 면'이 모여서 된다.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광주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본다. 첫째, 행정책임자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수도 관장할 행정조직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와 종합적인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집'만을 강조한 결과다. 광주가 '첨단산업 문화수도 광주'를 지향하면서 시행정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매력적인 도시경관 형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지속성과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민들의 공감, 공유를 통한 자발적 참여 없이는 문화수도가 될 수 없다.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국영애



전남무역이 공식 출범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누차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던 전남무역의 존립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각종 비판과 의혹(2006년 전라남도 경제관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 제기됐다.

이 아닌 항간의 의혹처럼 '자리 만들기' '무사안일' '잇속 쟁기' 등을 위해 회사를 만들고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농어민들이 느끼는 괴리감과 전남도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다.

행정실수, 실명화되어야 한다

있는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방관 및 의혹을 덮는 데 일조해 왔다. 결국 전남무역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내부 통제 규정 미비(중규 법인 책임자 부적절한 퇴직) ▲계약 과정의 투명성, 윤리성 부족 ▲경영 시스템 미비(회계규정 위반,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보관 허술) ▲국·도비 고부 조건위반 등 악소환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경영과 관련, 전남무역에 더 많은 일거리와 권한, 예산, 인원을 배정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이와 동시에 중앙기속인 구조조정, 강도 높은 경영진단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시설

지자체 시장개척단 '숫자놀이' 벗어나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효과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됐음을 의미한다.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는 중소기업이다.

실적 위주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도 문제다. 실적에 급급해 실제 수출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계약부터 맺고 본다라는 것이다.

달리의 MOU를 체결했다는 식의 발표를 내놓는다. 이 같은 숫자 놀음 식 발표는 지자체가 효율성보다는 대외 과시를 위해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3년 동안 지자체의 시장개척단 지원은 대폭 늘었지만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오히려 2년 연속 줄어 수출 지원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함을 입증했다.

'숨방망이 처벌'이 연가투쟁 부추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보인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하루 앞두고 헌정법 이정의 연가투쟁 경력을 '사면'해 처벌대상을 대폭 축소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이를 번복했다.

만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전교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징계나 행정조치를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낮췄은 것이다.

과거 연가투쟁에 대한 처벌 수위가 '숨방망이'에 그친 것도 문제다. 전교조는 합법화된 지난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조퇴투쟁을 포함해 모두 11번의 연가투쟁을 벌였다.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행위인만큼 정부의 조치는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이 과거와 같이 일포에 그쳐서는 안 된다.

無等鼓

'야망지수(Ambition Quotient)'라는 게 있다. 영국의 대중연설가 테오 시어 빌드와 랭커스터 대학 교수 캐리 루퍼는 공동저서 '비즈니스와 축구(Business and the Beautiful Game)'에서 이를 소개했다.

야망은 누구든 이루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런 까닭에 목표 설정과 함께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 자신의 열정을 활화산처럼 불사르기도 한다.

후퇴시키기도 한다. 쿠파 교수와 시어 빌드라는 이런 인물들을 성질이 포악하고 거친 동물의 이름을 빗대 '태즈메이니아 데빌' 야망가라고 명명했다.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 언제 들어도 설렘과 희망을 던지는 이 메시지는 미국인 윌리엄 클라크가 일본 사자로 농업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야망지수



공공기관·학교, 적자 허덕이는 화훼농가에 관심가져야

화훼 생산 농가의 겨울 나가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꽃은 먹고사는 것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즉시 영향을 받는다.

해 30% 정도 늘어났다. 반면 꽃 소비량은 증가하기는 커녕 경기 침체로 자꾸만 줄어들어 농가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도 앞장 서 우리 꽃을 사랑하고 애용해줬으면 한다. ▲이준영·고흥준 점암면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실수 잦아... 대책 마련해야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 주유원의 실수로 엉뚱한 기름을 넣는 일을 겪었다. 경유차를 가지고가 "5만원이요" 라고 말한 뒤 휘발유가려고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열쇠 받았는데, 휘발유 주유 노즐이 넣어져 있는 것 아닌가.

크를 청소했다. 물론 비용은 주유소에서 부담했다. 요즘 경유 승용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경유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는 사례가 많은데, 피해자가 생겨도 이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다투도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禿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 1992-11-29/주무번호 501-7111